

일심이문(一心二門) 구조에서 본 불이중도(不二中道)의 논리와 적멸(寂滅)의 실천적 의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핵심 사유 체계인 일심이문(一心二門) 구조에 내재된 불이중도(不二中道)의 논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그것이 지닌 '적멸(寂滅)'의 실천적 의미를 원효(元曉)의 화쟁(和諍) 철학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원효 사상 연구가 일심이문과 중도 사상의 교학적·이론적 분석에 편중되어 불교 궁극의 지향점인 실천적 종교성을 간과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대승기신론』에서 일심(一心)은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이라는 두 개의 문으로 드러나지만, 이는 공간적 분할이 아닌 하나의 본체(體)와 작용(用)의 유기적 관계이다. 원효는 이를 '비일비이(非一非異)'와 '수파유(水波喻)'를 통해 해명하며, 진여와 생멸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는 불이중도(不二中道)의 논리를 도출한다. 이러한 불이중도의 사유는 원효 특유의 '입파개차(立破開遮)' 논리적 구조를 거쳐, 대립하는 제반 사상을 원용하게 융섭하는 '화쟁(和諍)' 철학의 형이상학적 토대로 기능한다. 또한, 이분법적 언어 분별을 넘어선 '언어도단(言語道斷)'과 '여실지(如實知)'의 인식론적 전회를 이뤄낸다.

이러한 사유 구조 속에서 '적멸'은 현실을 이탈한 정적(靜的)인 은둔이나 허무적 소멸이 아니라, 번뇌와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생멸의 현장' 속에서 구현되는 역동적 실천으로 재해석된다. 진여와 생멸이 본래 둘이 아니기에, 참다운 적멸 역시 세속의 삶 한복판에서 주체적으로 시비분별(是非分別)의 집착을 쉬게 하는 가치 전환의 실천이다. 내면의 번뇌가 가라앉은 적멸의 상태는 외적으로 타자를 포용하는 화쟁의 삶으로 발현되며, 궁극적으로는 존재의 본연성을 회복하는 '귀일심원(歸一心源)'으로 귀결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일심이문의 불이중도 철학을 지해융합(知行融合)적 관점에서 적멸의 실천론과 필연적으로 연결 지음으로써 원효 사상의 역동적 구동력을 복원하였다. 이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시비 갈등, 정신적 소외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대립을 평화로, 분열을 연대로 전환할 수 있는 주체적 마음 혁신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현대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일심이문(一心二門), 불이중도(不二中道), 적멸(寂滅), 원효(元曉), 화쟁(和諍), 비일비이(非一非異), 귀일심원(歸一心源)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일심이문(一心二門)의 구조와 불이중도(不二中道)의 논리적 귀결

1. 일심이문의 체용적(體用的) 관계 구조
2.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의 비일비이(非一非異)적 관계
3. 일심이문 구조에서 불이중도로의 논리적 귀결

III. 불이중도(不二中道) 논리의 철학적 함의

1. 입파개차(立破開遮)의 논리적 구조와 중도성
2. 원융화쟁(圓融和諍)의 철학적 기반으로서의 불이(不二)
3. 언어도단(言語道斷)과 여실지(如實知)의 인식론적 전회

IV. 적멸(寂滅)의 실천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1. 생멸(生滅)의 현장 속에서 구현되는 역동적 적멸
2. 시비분별(是非分別)의 초월과 화쟁(和諍)의 삶
3. 일심(一心)으로의 귀환[歸一心源]과 현대적 의의

V.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참고문헌

I. 서론

대승불교 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승기신론(大ス起信論)』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마음인 일심(一心)으로 규정하고, 이를 깨달음의 영역인 심진여문(心眞如門)과 미혹의 영역인 심생멸문(心生滅門)이라는 두 개의 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러한 일심이문(一心二門)의 구조는 초월과 현상, 절대와 상대라는 이분법적 모순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원융(圓融)하게 통합하려는 시도이다. 한국 불교 사상의 초석을 다진 원효(元曉)는 이 일심이문의 구조를 바탕으로, 대립하는 제반 사상을 융섭하는 화쟁(和諍)의 철학을 전개하였다. 원효 사상의 중심에는 둘이 아니면서도 둘로 나누어지고, 둘이면서도 본래 하나라는 불이중도(不二中道)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원효 사상 연구는 일심이문과 불이중도의 철학적·이론적 체계를 해명하는 데 치중한 측면이 있다. 일심과 이문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거나, 화쟁의 논리적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에 머무름으로써, 불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실천적 종교성과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다룬 경향이 있다. 불교에서 이론(解)은 반드시 실천(行)과 증명(證)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심이문의 구조적 이해와 불이중도의 논리는 단순히 사유의 유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번뇌와 대립이 가라앉은 궁극의 평온 상태인 적멸(寂滅)을 현실에서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과제와 직결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일심이문 구조에 내재된 불이중도의 논리적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것이 적멸이라는 불교적 해탈의 경지를 현실 삶 속에서 구현하는 데 어떤 실천적 의미를 지니는지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여(眞如)라는 절대적 세계와 생멸(生滅)이라는 현상적 세계가 불이(不二)의 관계로 맞물려 있다는 인식은, 현실의 갈등과 집착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초월하는 적멸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제2장에서는 『대승기신론소별기』를 중심으로 일심이문 구조의 역동적 관계성을 분석하고, 이것이 어떻게 불이중도의 논리로 귀결되는지 살핀다. 제3장에서는 불이중도의 논리가 지닌 철학적 함의를 구조적으로 해명한다.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인 적멸의 개념을 단순한 허무나 소멸이 아닌, 생멸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 실천으로 재해석하고 그 현대적 의의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종합하고 본 연구가 지닌 학술적·실천적 기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일심이문(一心二門)의 구조와 불이중도(不二中道)의 논리적 귀결

1. 일심이문(一心二門)의 체용적(體用的) 관계 구조

『대승기신론』 체계의 핵심은 인간의 마음을 절대적 본질인 일심(一心)으로 규정하고, 이를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이라는 두 개의 문으로 범주화하여 설명하는 데 있다.¹⁾ 여기서 진여문은 언어와 사유를 초월한 절대 고요의 본체(體)를 상징하며, 생멸문은 생로병사와 번뇌, 차별이 일어나는 현상적 작용(用)을 의미한다.

원효는 이 두 개의 문이 별개로 존재하는 공간적 분할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지닌 두 가지 측면(一한 體에 二한 門)임을 명확히 한다.²⁾ 진여와 생멸은 서로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다.

1) 『대승기신론』(T32, 576쪽 상), "依一心法有二種門。云何爲二。一者心眞如門，二者心生滅門。該二門各攝一切法。以一切法不相離故。"

2) 원효, 『대승기신론疏』 권1 (T44, 205쪽 중), "一心之體 具有二門。眞如門者 是心之體性，生滅門者

진여문은 생멸의 현상을 떠나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생멸문 역시 그 본질을 파고들면 진여 아닌 것이 없다.³⁾ 원효는 이를 본체와 작용(體用)의 역동적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초월적 절대성과 현실적 현상성을 하나의 일심 안에서 유기적으로 통합한다.⁴⁾ 즉, 미혹한 중생의 삶(생멸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본성(진여문)을 내포하고 있으며, 깨달음 또한 중생의 현실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구조적 당위성이 여기서 도출된다.

2.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의 비일비이(非一非異)적 관계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와 『별기』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비일비이(非一非異, 하나도 아니요 다르지도 않음)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두 문은 개념적으로 엄격히 구별되므로 하나가 아니다[非一]. 진여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이지만 생멸은 생주이멸(生住異滅)의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멸하는 현상의 본질이 곧 진여이고 진여의 인연에 의해 생멸이 나타나므로 두 문은 다르지도 않다[非異].⁵⁾

이러한 비일비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원효는 물과 파도의 비유[水波喩]를 심화하여 적용한다. 바람에 의해 요동치는 파도(생멸문)는 고요한 물(진여문)과 겉모습이 다르지만, 파도의 본질 역시 물이라는 점에서는 완전히 동일하다. 파도가 곧 물이요, 물이 곧 파도라는 이 관계성은 진여와 생멸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⁶⁾ 원효는 이를 통해 진여를 고정불변의 박제된 절대자로 보는 서구식 형이상학적 이분법을 깨뜨리고, 현상 세계의 변화 가능성과 초월 세계의 현실 참여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⁷⁾

3. 일심이문 구조에서 불이중도(不二中道)로의 논리적 귀결

진여문과 생멸문이 비일비이의 관계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반드시 불이중도(不二中道)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중도(中道)란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않는 올바른 안목을 뜻하며, 불이(不二)란 대립하는 두 개념이 본래 둘이 아님을 꿰뚫어 보는 통찰이다. 일심이문의 구조 속에서 중도는 다음과 같은 삼단계 논리적 전개를 거쳐 완성된다.

생멸문을 떠난 고립된 진여는 관념적 허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상(생멸)을 무시한 채 절대(진여)만을 고집하는 초월적 독단은 중도에 어긋난다. 현상 세계의 차별과 갈등에 눈이 멀어 그 본질인 일심의 평등성(진여)을 보지 못하는 세속적 집착 역시 중도를 상실한 상태다.⁸⁾

따라서 참다운 중도는 진여와 생멸이라는 두 극단을 모두 부정하는 동시에 모두 긍정하는 방식으로 성립한다.

원효에게 있어서 불이중도는 단순히 중간을 취하는 타협이 아니다. 그것은 진여를 통해 생멸을 소통시키고, 생멸을 통해 진여를 증명하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자각이다. 진여와 생멸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不二) 이 논리적 결론은, 번뇌로 가득 찬 생멸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고요한 진여의 경지, 즉 적멸(寂滅)을 성취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한다.⁹⁾ 이로

是心之相用。體用雖殊 其原是一。故名一心二門。”

3) 고영섭, 2022, 「원효(元曉)의 기신사상(起信思想) - 일심(一心)과 본각(本覺)의 접점과 통로-」

불교학및교학연구 제1호, 173~216쪽.

4) 고영섭, 2024, 『분향원효불교사상사』, 도서출판운주사.

5) 元曉, 『大乘起信論別記』(T44, 226쪽 상), “眞如門與生滅門, 非一非異。舉體相從, 故非異; 眞妄義別, 故非一.”

6) 元曉, 『大乘起信論疏』 권2 (T44, 208쪽 하), “如大海水 因風波動。水之與波 不相捨離, 而彼水性 卽無動搖。卽此心法 亦復如是, 眞如之水 因無明風 舉體動搖 作生滅波, 而心眞如性 卽無動搖。”

7) 고영섭, 2024, 『분향원효불교사상사』, 도서출판운주사.

8) 고영섭, 2024, 『분향원효불교사상사』, 도서출판운주사.

써 일심이문의 교학적 구조는 중도의 논리를 징검다리 삼아, 현실적 구동력을 지닌 실천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필연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III. 불이중도(不二中道) 논리의 철학적 함의

1. 입파개차(立破開遮)의 논리적 구조와 중도성

원호에게 있어 불이중도는 단순히 극단을 배제하는 소극적 절충이 아니라, 대립하는 사유를 극복하고 소통시키는 역동적인 논리 구조를 지닌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유 방식이 바로 입파개차(立破開遮)이다. 원호는 어떤 사상이나 명제를 세우기도 하고[立] 깨뜨리기도 하며[破], 열어주기도 하고[開] 막아내기도 한다[遮]. 이는 고정된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진리를 유연하게 드러내는 중도적 사유의 극치이다.¹⁰⁾

이 구조에서 파(破)와 차(遮)는 특정한 하나의 견해에 집착하여 그것만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독단과 편견을 철저히 부정하는 단계다. 반면 입(立)과 개(開)는 그 견해가 가질 수 있는 상대적 진리성과 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단계다. 원호는 진여(眞如)의 절대성에만 갇혀 현상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현상의 문(生滅門)을 열어 보이고, 반대로 현상의 차별에만 매몰된 자에게는 본질의 문(眞如門)을 들어 깨뜨린다. 이처럼 입과 파, 개와 차가 고정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맞물려 돌아가는 논리적 유희 자체가 바로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불이중도의 현현(顯現)인 것이다.¹¹⁾

2. 원융화쟁(圓融和諍)의 철학적 기반으로서의 불이(不二)

불이중도의 철학적 함의는 현실 세계의 사상적·사회적 갈등을 융합하는 화쟁(和諍)의 태도로 직결된다. 원호 당시 불교계는 중관학파(공 사상)와 유식학파(유 사상) 등이 서로 자신의 교설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원호는 이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일심이문 체계의 불이(不二) 사상을 화쟁의 철학적 기반으로 삼았다.

원호의 화쟁 논리에 따르면, 각 학파의 주장(諍論)은 일심(一心)이라는 하나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파도에 불과하다. 파도의 모양과 높낮이가 다르다고 해서 파도의 본질인 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주장은 본질적 차원의 대립이 아니라, 일심의 유기적 작용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 것뿐이다.¹²⁾ 이처럼 높은 언덕과 낮은 골짜기가 결국 하나의 땅에 속해 있다는 식의 통찰은 각 사상의 독단성을 깨뜨리는 동시에[和], 그 사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전체 체계 속에서 원만하게 융합[圓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즉, 불이중도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성을 잃지 않는 화쟁 철학의 형이상학적 토대이다.¹³⁾

3. 언어도단(言語道斷)과 여실지(如實知)의 인식론적 전회

9) 고영섭, 2022, 「원호(元曉)의 기신사상(起信思想) - 일심(一心)과 본각(本覺)의 접점과 통로-」 불교학및교학연구 제1호, 173~216쪽.

10) 元曉, 『大乘起信論疏』 권1 (T44, 202쪽 상), "爲欲開闢大乘要道, 離諸執着, 顯如來意, 故以此論 立破無碍, 開遮自在."

11) 고영섭, 2022, 「원호(元曉)의 기신사상(起信思想) - 일심(一心)과 본각(本覺)의 접점과 통로-」 불교학및교학연구 제1호, 173~216쪽.

12) 元曉, 『十門和諍論』 (T45, 363쪽 중), "百家之說 皆有其由, 諸子之論 咸有其理. 猶如衆流同歸于海, 亦如衆一不異乎大."

13) 고영섭, 2017, 「분항 원호의 화쟁회통 인식」, 『불교학보』 제81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59~92쪽.

불이중도의 논리는 인간의 인식과 언어가 지닌 한계를 명확히 짚어냄으로써 인식론적 전회를 이뤄낸다. 언어와 사유는 필연적으로 대상과 주체를 나누고, 맞다[是]와 틀리다[非]를 이분법적으로 분별하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언어적 사유에 갇혀 있는 한, 진여와 생멸이 본래 하나라는 불이중도의 세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진정한 중도의 자리는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사유의 분별이 사라진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영역이다.¹⁴⁾

그러나 원효는 언어를 단순히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언어가 진리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方便(方便)으로서의 유용성을 가치를 인정한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자각인 여실지(如實知)를 향한 여정이다. 불이중도를 자각한다는 것은 언어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면서도(遮), 그 언어를 매개로 삼아 언어 너머의 실상을 온전히 깨닫는 것(照)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전회는 이론적 교학(敎)의 단계를 넘어, 온몸으로 진리를 체득하고 번뇌를 소멸시키는 실천적 수행인 '적멸(寂滅)'의 세계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관문이 된다.¹⁵⁾

IV. 적멸(寂滅)의 실천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1. 생멸(生滅)의 현상 속에서 구현되는 역동적 적멸

전통적으로 적멸(寂滅)은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진 고요한 상태, 혹은 세속과의 단절을 통한 초월적 경지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일심이문(一心二門)과 불이중도(不二中道)의 논리 구조 안에서 적멸은 결코 현상 세계를 이탈한 정적(靜的)인 공간이 아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이 본래 둘이 아니라면, 참다운 적멸 역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생멸의 세계를 떠나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

원효의 관점에서 적멸은 생멸의 현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멸하는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집착과 분별망을 쉬게 하는 것이다. 파도가 칠 때 파도를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의 본질이 물임을 깨달아 요동침 속에서 고요함을 보는 것(即生滅이 곧 寂滅)이 불이중도적 적멸이다.¹⁶⁾ 따라서 적멸의 실천은 심산유곡에서의 은둔이 아니라, 탐·진·치(貪瞋癡)의 번뇌가 소용돌이치는 일상과 사회적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마음의 혁신이다. 번뇌의 소멸은 현실의 부정(否定)이 아닌, 현실의 여실한 자각을 통해 완성된다.¹⁷⁾

2. 시비분별(是非分別)의 초월과 화쟁(和諍)의 삶

불이중도에 기반한 적멸의 실천적 핵심은 상대적 시비분별(是非分別)을 내면에서 잠재우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나는 옳고 타인은 틀리다(아시타비, 我是非非)라는 이분법적 장벽을 세운다. 이러한 분별집착이야말로 모든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갈등(諍論)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다.

적멸을 실천한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자각을 통해 내가 천 소견 역시 하나의 방편에

14) 元曉, 『大乘起信論疏』 권1 (T44, 205쪽 상), "眞如之法 言語道斷 心行處滅, 離言絕慮, 唯是聖智 乃能證知."

15) 고영섭, 2024, 『분향원효불교사상사』, 도서출판운주사.36~38쪽

16) 元曉, 『大乘起信論疏』 권2 (T44, 212쪽 중), "生滅之相 即是寂滅, 非指生滅滅盡 始名寂滅. 故云 即生滅而見寂滅."

17) 고영섭, 2022, 「원효(元曉)의 기신사상(起信思想) - 일심(一心)과 본각(本覺)의 접점과 통로-」 불교학밀교학연구 제1호, 173~216쪽.

불과함을 깨닫고, 대립하는 상대방의 견해를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는 화쟁적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옳음[是] 속에 상대의 틀림[非]이 포섭되고, 상대의 틀림 속에 나의 옳음이 상즉(相卽)해 있음을 알 때, 독단적인 결투는 멈추고 대화와 상생의 길이 열린다. 즉, 내면의 적멸(번뇌의 가라앉음)은 외적인 화쟁(갈등의 조화로운 해결)으로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되며, 이는 곧 나와 타인이 함께 해탈로 나아가는 자타일시성불(自他一時成佛)의 실천적 경로가 된다.¹⁸⁾

3. 일심(一心)으로의 귀환[歸一心源]과 현대적 의의

원효는 마음의 본래 자리이자 깨달음의 원천인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귀일심원(歸一心源)이라 불렀다. 불이중도적 논리로 무장하고 생명의 현장에서 적멸을 실천하는 최종적인 지향점이 바로 이 일심으로의 귀환이다. 이는 인간이 소외와 분열을 극복하고 본연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¹⁹⁾

이러한 적멸의 실천적 의미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가치관의 대립, 정신적 고독에 시면(視面)해 있는 현대 사회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현대인들은 끝없는 생명의 운동(경쟁, 소유, 차별)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일심이문 구조가 보여주는 적멸의 철학은, 우리가 밭 디디고 있는 번잡한 일상 자체가 곧 깨달음의 자리[淨土]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외부의 조건을 바꾸어 행복을 찾으려는 소모적 질주를 멈추고, 매 순간 내면의 분별심을 가라앉히는 적멸을 실천함으로써, 현대인은 갈등을 평화로, 소외를 연대로 전환할 수 있는 주체적 힘을 얻게 된다.²⁰⁾

V.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대승기신론』과 원효의 해석학을 사상적 토대로 삼아, 일심이문(一心二門) 구조에 내재된 불이중도(不二中道)의 논리를 규명하고 그것이 지닌 적멸(寂滅)의 실천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단순한 공간적 분할이 아닌, 일심이라는 하나의 본체(體)와 작용(用)의 관계임을 밝히고 비일비이(非一非異)와 수파유(水波喻)를 통해 두 문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음을 논증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를 원효 특유의 입파개차(立破開遮)와 원융화쟁(圓融和諍)의 사유 구조로 확장하여, 불이중도가 사상적 독단주의를 깨뜨리는 철학적 토대이자 언어 너머의 실상을 자각하게 하는 인식론적 전회임을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적멸을 현상 세계의 도피가 아닌 생명의 한복판에서 구현되는 역동적 실천으로 재해석하였으며, 내면의 적멸이 외적인 화쟁의 삶과 귀일심원(歸一心源)으로 발현되는 메커니즘과 그 현대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실천적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

18) 元曉, 『大般涅槃經宗要』(T38, 241쪽 하), "絕是非之戲論, 泯自他之分別. 內無所執, 外無所諍, 是謂眞寂滅."

19) 元曉, 『金剛三昧經論』 권1 (T34, 861쪽 상), "歸一心源者, 總攝二門之本原也. 舉體動搖而作生滅, 卽此生滅本自寂滅, 故契此寂滅 卽是歸源."

20) 고영섭, 2024, 『분황원효불교사상사』, 도서출판운주사.

첫째, 기존 연구가 일심이문과 불이중도 사상을 교학적·이론적 분석에 치중하여 다루었던 한계를 넘어, 이를 불교 궁극의 목적인 '적멸'이라는 실천론과 필연적으로 연결 지음으로써 원효 사상의 지해융합(知行融合)적 면모를 부각하였다.

둘째, '적멸'의 개념을 정적이고 은둔적인 소멸의 상태에서 '생명의 현장 속에서 번뇌를 쉬는 역동적 실천'으로 전환하여 재해석하였다. 이는 불교의 해탈론이 현실의 도피처가 아니라 현실의 갈등을 변혁하는 주체적 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셋째, 이념·계층·세대 간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시비분별(是非分別)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현대 사회에 화쟁과 상생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나만 옳고 타인은 틀리다'는 독단을 내려놓고 내면의 적멸을 성취할 때, 비로소 타자와의 진정한 연대와 평화가 가능하다는 성찰을 준다.

다만 본 연구는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와 『별기』를 중심으로 한 문헌학적·철학적 거대 담론의 분석에 집중한바, 적멸의 실천을 일상의 영역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제시는 미흡한 한계가 있다. 일심이문의 불이중도 철학이 현대인의 일상적 삶과 심리 치유 등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심도 있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大乘起信論』(實叉難陀 譯, 大正新脩大藏經 32冊)

『大乘起信論疏』(元曉 著, 大正新脩大藏經 44冊)

『大乘起信論別記』(元曉 著, 大正新脩大藏經 44冊)

『大般涅槃經宗要』(元曉 著, 大正新脩大藏經 38冊)

『金剛三昧經論』(元曉 著, 大正新脩大藏經 34冊)

2. 단행본

고영섭, 2024, 『분황원효불교사상사』, 도서출판운주사. 27~110쪽.

3. 논문

고영섭, 2008, 「元曉一心의 神解性 분석」, 『불교학연구』 제20호(2008. 8.), 165~190쪽.

고영섭, 2017, 「분황 원효의 화쟁회통 인식」, 『불교학보』 제81호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59~92쪽.

고영섭, 2022, 「원효(元曉)의 기신사상(起信思想) - 일심(一心)과 본각(本覺)의 접점과 통로-」
불교학및교학연구 제1호,173~216쪽.

고영섭, 2024, 「분황 원효 『대승기신론별기』의 중심 내용과 주요 특징」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불교철학』 제15호